

이미지 실추 송경중 경총 부회장 해임

‘친노동계’ 성향으로 회원사 간 갈등

후임 이등근 현대경제연구원장 유력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3일 임시총회를 열고 송영중 상임부회장을 해임한 가운데 바로 후임자 인선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송영중 부회장의 후임으로는 이등근 현대경제연구원장이 유력한 후보로 떠오르고 있다.

경총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경총 임시총회를 열고 송영중 상임부회장의 해임 안건을 가결했다.

송 부회장의 해임 안건 통과를 전제 407개 회원사의 절반이 참석해야 하고 절반 이상이 찬성해야 가능하다.

이날 임시총회에는 전체회원 407명 중 참석회원 63명, 위임회원 170명으로 총 233명이 참석해 총회를 열기 위해 필요한 정족수인 204명을 충족했으며, 233명 중 224명의 찬성으로 해임안이 의결됐다.

경총은 송 부회장의 해임 사유로 △직원 간 분열 조장과 사무국 파행 운영 △경제단체 정체성에 반한 행위와 회장 업무지시 불이행 △경총 신뢰 및 이미지 실추 등을 꼽았다.



송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의 회장이 3일 임시총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면서 해임안 상정 배경을 밝혔다.

해임안이 가결된 만큼 경총은 송 부회장 후임자 물색에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송 부회장이 ‘친노동계’ 성향으로 회원사 간 갈등을 빚은 만큼 이번엔 재

계를 대변할 ‘친기업 인사’를 임명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후임 후보 물망에 오른 인물 중 가장 유력한 인사는 이등근 현대경제연구원장(전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사진)이다.

지난 8년간 대한상의 부회장을 역임하며 재계 입장을 대변해 온 데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잔뼈가 굵은 인물로 평가된다. 과거 대한상의 부회장직을 역임하는 동안 손경식 경총 회장과도 한차례 호흡을 맞춘 바 있어 후임자로 유력하다.

경총은 또 부회장 선임 과정에서 내부 갈등이 불거질 수 있는 만큼 신중을 기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경총은 지난 2월 박병원 전 경총 회장의 후임자를 찾는 과정에서 회원사 간 갈등 등으로 회장 공백 사태를 맞았다.

당초 박상희 대구 경총 회장이 후임 회장에 내정자로 거론됐으나 회원사의 반대가 거세 갈등을 빚는 등 내용을 겪은 바 있다. 송 부회장 선임 과정에서도 잡음이 발생한 만큼 전행위를 통해 후임 인선작업을 밟을 예정이다.

김소연 기자 ksy@



지난 6월 한 이산가족이 신청서를 접수하고 있다.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의뢰서 교환

북측 가족 인적사항 등 담겨

긴 의뢰서를 받았다.

남북 적십자는 8월 15일 광복절 계기 이산가족 상봉 준비를 위해 3일 판문점에서 이산가족 생사 확인 의뢰서를 교환했다.

의뢰서에는 이산가족 상봉 2차 후보자로 선정된 250명의 명단이 북측 가족의 인적 사항과 함께 담겼다.

대한적십자사 관계자는 3일 “지난달 25일 컴퓨터로 추첨해 선정된 1차 후보자 500명 가운데 상봉 의사와 건강 상태를 확인해 2차 후보자 250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한적 관계자가 판문점에서 판문점에 파견된 통일부 담당 공무원에게 의뢰서를 건네서 북측에 전달하고 통일부 공무원을 통해 북측 적십자로부터 북측 이산가족 200명의 명단이 담

긴 의뢰서를 받았다. 이날 오전 11시 판문점에서 북측과 생사확인 의뢰서를 교환했다. 남북 적십자는 생사 확인 의뢰서를 주고받은 데 기초해 오는 25일까지 생사확인 결과가 담긴 회보서를 교환할 예정이다.

남북은 생사확인 회보서의 생존자 중 최종 상봉 대상자를 각 100명씩 선정해 8월 4일 이산가족 상봉자 최종 명단을 교환하는 것으로 상봉 준비를 마무리한다.

최종 상봉자로 선정된 남북 이산가족들은 상봉행사 전날인 8월 19일 방북 교육을 받은 뒤 이튿날 상봉 장소인 금강산으로 향한다.

앞서 남북은 지난달 22일 적십자회담을 열고 각 100명씩의 이산가족이 상봉하는 행사를 8월 20~26일 금강산에서 열기로 합의했다.

샤오미, 레이 쥘 15억달러 보너스 받는다



◇ 샤오미, 최고경영자에 15억달러 보너스

중국 스마트폰 제조기업 샤오미의 최고경영자 레이 쥘이 15억달러(약 1조6000억원) 상당의 주식을 보너스로 받는다.

지난달 22일(현지시간) 샤오미는 공동설립자 겸 최고경영자에게 주식을 보너스로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회사 성장과 7월 홍콩 증시 상장에 따른 것이라고 전했다.

보너스 지급을 결정한 샤오미 이사회는 주식에 별도 조건을 붙이지 않았

회사 성장·홍콩증시 상장 따른 것

아마존, 美 온라인 약국 필팩 인수

다. 9일 홍콩 증시 상장 후 보너스 금액은 1조9600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샤오미의 이 같은 결정은 IT기업들이 최근 지급한 보너스 중 사상 최대다. 2011년 스냅챗의 최고경영자 에반 스피겔이 받은 6억3800만달러(약 7100억원)를 뛰어넘는 수치다.

한편 샤오미는 홍콩 증시 상장 시 61억달러(약 6조8000억원)를 공모할 계획이며 기업 가치는 550억~700억달러로 예상된다.

샤오미는 지난 2013년 중국 휴대폰



레이 쥘



TJ 파커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 미국과 유럽 시장을 공략해 현재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은 6%다.

◇ 아마존, 온라인 약국 ‘필팩’ 인수로 사업 확대

미국 전자상거래 기업 아마존이 미국 50개 주에서 의약품 유통 면허를 갖고 있는 온라인 약국 필팩을 인수

한다.

아마존은 “처방약을 가정에 배달하고 맞춤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는 필팩을 인수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온라인 약국 필팩은 만성질환 환자들에게 필요한 처방약을 포장, 배송해주는 서비스 업체다. 지난해 1억달러(약 1120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렸다.

필팩의 공동창업자 TJ 파커는 보도 자료를 통해 “아마존과 더 나은 의약품을 고객들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아마존이 필팩을 인수하면서 미국 약국 체인 윌그린, CVS, 라이트 에이드 등의 주가가 급락하기도 했다.

방기열 기자 redpatrick@

배임수재도 무죄

부실 기업을 인수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사진)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회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법리를 오해하거나 증거 재판주의를 위반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정 전 회장은 포스코그룹 전락사업



정준양

실장과 공모해 부실기업인 성진지오택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지분을 얻게 평가액보다 2배가량 높게 사

들여 포스코에 약 1592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정 전 회장은 이상득 전 의원에 게 포스코 현안을 해결해달라고 청탁하고 그 측근이 운영하는 업체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도 기소됐으나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됐고, 검찰이 상고를 포기해 지난해 11월 확정됐다. 이 전 의원은 상고심 사건이 진행 중이다.

윤정남 기자 yoon@

◆ 김현기 지음 | 값 14,000원

앞으로 대박 날 땅의 위치를 알고 싶은 사람들

모여라~ 모여라~

성공적인 땅 투자 10계명

- 1계명 용도지역에 일방적으로 지배받지 않는다.
- 2계명 지목에 지배받지 않는다.
- 3계명 접근성과 잠재성의 연계성을 연구한다.
- 4계명 인구에 집중한다.
- 5계명 위치가 곧 가치다.
- 6계명 자상품보다 인구에 집중한다.
- 7계명 자신만의 기준을 세운다.
- 8계명 자신의 경제력을 잘 인지한다.
- 9계명 규제 공부는 필수다.
- 10계명 기획부동산의 의미를 적극 참고하고, 관찰한다.

땅 투자 10계명을 고수하기 전에 자신의 처지와 투자하고자 하는 땅의 위치에 대해 잘 알아야 한다. 땅지 역시 개발 대상에 포함된다. 최소비용으로 시작할 수 있는 게 땅지다. 땅지 가치는 거의 바닥 상태다. 주변 변수에 따라 가치가 높아질 여력이 충분해 있다. 사고자 하는 땅이 개발 대상의 땅인지, 내가 투자할 능력이 있는 사람인지 제대로 인지하고 나서 컨설팅트를 만나자.

돈이 되는 부동산

독이 되는 부동산

집 부자 되고

www.muhan-book.co.kr | 원고 투고 muhanbook7@naver.com | 전화 (02)322-6144 | 팩스 02-325-6143

무한